

##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권태효\*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여성거인설화 전승의 지역적 분포
3. 바다와 섬을 관장하는 여성거인신과 육지 여성거인신의 차이점
4. 남성거인신과 여성거인신의 관계성
5. 여성거인설화의 변이 방향
6. 마무리

### 국문요약

여성거인설화는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신적 면모를 보이는 설화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지만 자료의 전승기간이 길고 자료 층위도 복잡하며,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연계된 설화자료도 많으며, 원초적인 여성신 관념과 상통하고 있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여성거인설화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연구가 집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여성거인이 어떤 지역적 분포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여성거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마고할미와 특정의 지역적 분포를 보이는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서해안의 개양할미, 강원도 삼척의 서구할미, 경상도 동부지역의 안가닥할미가 존재하는데, 그 명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행위나 성격 등은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동일한 존재에 대한 지역적 변이형으로 보인다. 둘째는 바다와 섬을 관장하는 여성거인이 육지의 여성거인과는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로, 육지의 여성거인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은 신앙적 면모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신화적 면모 또한 크게 약화된 반면 바다와 섬을 무대로 활동하는 여성거인은 여전히 어민들의 수호신적 기능을 하는 등 신앙적 흔적이 남아있다. 셋째는 남성거인이 여성거인과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인데, 남성거인설화 자료는 태초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형태의 창조신적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창조신적 기능 또한 현저히 약화된 양상이어서 여성거인설화 자료 중 회화화나 민담화가 진행된 자료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아울러 여성거인설화의 전승이 후대에 현실적 인식에 따라 변모되면서 남성거인으로 대체되면서 출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자료 양상을 보이는 여성거인설화의 변이방향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 1) 창조신에서 회화화된 신격으로 2) 숭배의 대상에서 징치의 대상으로 3)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신에서 악신으로 4) 여성거인에서 남성거인으로 5) 비현실적 형상화에서 현실에 가까운 형상으로 변이되어 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 여성거인설화, 설문대할망, 마고할미, 개양할미, 서구할미, 안가덕할미, 창조신, 회화화된 신, 바다와 섬을 관장하는 여성거인

## 1. 들어가는 말

여성거인설화의 전승은 짜임새있는 신화적 서사로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다. 단편적이고 파편화되어 전승되는 경향이 강하며, 그 담고 있는 내용 또한 창조신화적 성격에서부터 회화화된 성격의 자료까지 다단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은 자료이다.

지금까지 여성거인설화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장주근, 임동권 등이 제주도 설문대할망설화를 살피면서 선편을 잡은 이래<sup>1)</sup> 마고할미, 개양할미 등 육지의 여성거인설화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1)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여성거인 존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여성거인설화의 성격 및 유형 분류적 측면,<sup>2)</sup> 중국 자료와의 비교,<sup>3)</sup> 설화의 변이양상 및 파생형에 대한 연구,<sup>4)</sup> 신격의 성격에 대한 측면<sup>5)</sup>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궁금한 점이 적지 않은 대상이 여성거인 설화이다. 이 글에서는 무심코 지나쳤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성거인설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성거인설화를 두고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문제이나 온전히 논의

임동권, 「선문대할망설화고」, 『한국민속논고』, 집문당, 1984.

2) 이성준, 「설문대할망설화연구」, 『국문학보』10호, 제주대 국문과, 1989.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김인희, 「거녀설화의 구조와 기능」, 중앙대 석사논문, 1994.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허춘, 「설문대할망 설화 논고- 제주도 거녀설화의 성격」,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백문사, 1993.

김현선,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33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8.

3) 송화섭, 「한국의 마고할미 고찰」, 『역사민속학』1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7.

김인희, 「한·중 해신신앙의 성격과 전파」, 『한국민속학』33호, 한국민속학회, 2001. 6.

4)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5)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세계신화의 이해』, 소하, 2009.

송화섭,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 『민속학연구』22호, 국립민속박물관, 2008. 6.

권태효, 「마고할미 - 여성 거인의 서글픈 창조의 몸짓」(서대석 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2, 휴머니스트, 2008.)

조현철,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 제주도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신화 재조명 발표논문, 2009. 5.

조현철, 「마고할미인가 마귀할미인가」,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박종성, 「창조와 대지의 여신 선문대할망의 서러운 일대기」, 2009 '제주도 본풀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11.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25, 한국민속학회, 1993.

되지 못했던 점들을 제시해보면 다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마고할미, 설문대할망, 개양할미, 안가닥할미, 서구할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승되는 여성거인에 대한 명칭의 지역적 분포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가장 분포가 넓은 여성거인은 마고할미이지만 제주도 설문대할망이나 개양할미처럼 지역별로 특정의 명칭을 지닌 여성거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들 여성거인은 과연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하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다.

둘째, 바다와 섬을 무대로 활동하는 여성거인과 육지에서 활동하는 여성거인의 모습은 차이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이나 서해안의 개양할미는 바다나 섬을 무대로 삼아 활동하는 여성거인이다. 반면 마고할미, 서구할미, 안가닥할미 등은 대체로 육지에서 활동하는 여성거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활동무대가 다른 경우에 여성거인의 성격이나 행위, 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상이점이 없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의 거인설화에는 여성거인설화가 중심이 되지만 장길손과 같은 일부 남성거인의 존재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남성거인과 여성거인은 과연 어떤 관계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같은 성격의 거인인데 성(性)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여성거인의 후대적 변이형태로 남성거인의 면모가 나타난 것인지 점검해 볼 문제이다.

넷째, 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닌 자료를 비롯해 회화화되는 모습,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자료 등 다양한 자료 양상을 보이는 여성거인설화 이기에 이들 자료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변이방향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성거인설화는 자료의 성격상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두고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이들 네 가지 문제를 중심에 두면서 여성거인설화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 2. 여성거인설화 전승의 지역적 분포

우리의 거인설화에는 다양한 여성거인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마고할미라고 불리며 전승되는 지역의 빈도가 높으나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명칭으로 전승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여성거인설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존재들을 제시해보면서 논지를 전개해보도록 하겠다.

- 가. 마고할미
- 나. 설문대할망
- 다. 개양할미
- 라. 안가닥할미
- 마. 서구할미
- 바. 여장사, 여장수 등

가)의 마고할미는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전승되는 여성거인으로, 가장 일반적인 여성거인의 명칭이라고 파악해도 무리가 없다. 그 행위는 주로 흙을 옮겨 지형을 형성시키거나 성을 쌓기도 하고, 마고할미의 장식이나 증거물이 남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태초에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신적 면모를 보이는

자료가 다수 있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여 퇴치대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런 마고할미는 그 명칭에 있어 노고마고할미라든가 노고할미 등의 명칭으로도 전해지고 있으며, 마귀할멈으로 인식되며 전승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노고마고할미나 노고할미는 노고(老姑)라 하여 늙은 할미라는 뜻이 쓰이거나 덧붙여진 형태인 것으로 보이며, 마귀할멈은 마고할미가 전승되면서 음의 유사함 때문에 전승상 혼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sup>6)</sup> 특히 마귀로 명칭이 변형된 경우는 지형을 형성시키는 행위마저도 악한 존재에 의한 나쁜 행적인 것으로 변모시켜 이야기가 전승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마귀할멈이 이처럼 악한 행태를 보이는 정치대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실제 행위는 여성거인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별개의 존재는 아니며, 여성거인신격의 악신적 변모양상으로 파악함이 바람직하다.

나)의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의 여성거인으로,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는 설문대할망이라고 하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에서 드물게 마고할망이라는 명칭으로 채록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아주 특수한 사례로 보이며,<sup>7)</sup> 여성거인신에 대해 통용되는 명칭은 설문대할망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설문대할망의 행위는 육지의 마고할미와 마찬가지로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행위와 육지로 다리를 놓기도 하고, 족두리나 공기돌 등 갖고 있던 증거물을 남기는 전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이런 나)의 설문대할망은 배설물로 지형을 만들거나 성기로 사냥을 하는 등 희화화되거나 죽을 끓이다가 빠져죽는 비극적인 존재로 그려지기

6)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조현설, 『마고할미인가 마귀할미인가』,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7)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31쪽.

도 한다.<sup>8)</sup> 하지만 창조신적인 면모가 여타 이름을 지닌 여성거인 신격의 자료보다 훨씬 잘 나타난다. 『대계』9-2의 <설문대할망>과 같은 자료를 보면 태초에 붙어있던 하늘과 땅을 분리시킨 뒤 주변을 정리하면서 제주도를 형성시키는 내용의 자료도 있어 창조신화적 성격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문대할망은 설문대허루방과 짝을 이뤄 등장해 함께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료도 있다. 아울러 아주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표선리 당개 포구의 해신당에서는 설문대할망이 당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여성거인이 구체적인 신앙대상 신격으로 섬겨지는 모습은 부안 수성당의 개양할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제주도 해안에서 설문대할망이 당신으로 모셔져 신앙시된다는 점은 여성거인신격에 대한 신앙적 흔적을 더듬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의 개양할미는 전라북도 부안의 수성당을 중심으로 섬겨지는 여성거인신격으로, 고창에서는 갠구할미,<sup>9)</sup> 전남 무안, 충남 보령의 삼시도, 예산, 부여 등지<sup>10)</sup>에서도 고양할미 또는 개뱅이할미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여성거인설화가 전승되기도 한다. 부안의 수성당의 개양할미의 경우는 8딸을 거느리고 있고, 어민들을 위해 바다 깊이를 재면서 깊게 패인 곳의 흙을 메워주는 등 거인신의 행적을 통해 바다로부터 어민을 보호해주어 신앙시되는 여성거인이다.<sup>11)</sup> 이런 개양할미는 채록자료를 보

8) 설문대할망설화의 유형 양상은 문영미가 그 분포도와 함께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문영미, 앞의 글)

9) 임석재, <갠구할머니와 청동사자>, 『한국구전설화』(전북1), 평민사, 1993. 33쪽.

10) 강성복 선생이 수집한 미발표 자료를 근거로 한다. 충청지역 보령의 삼시도와 해안과 인접한 부여 쪽에도 고양할미라는 여성거인설화가 전승되고 있음을 제보하였다.(2010년 4월 10일 무속학회 토론회)

11) 개양할미 관련 설화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에

면 비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신성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여타 여성거인 신격의 자료를 살펴볼 때 당이 있어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지는 사례가 드문데, 개양할미의 경우는 수성당에서 모셔지고 있고, 전남 무안에서 채록된 자료에서도 보면 바다를 지켜준다고 믿어지던 할미바위에서 고기잡이배가 제사를 올렸다고 하고 있어 어민들에게 신앙시되던 여성거인신의 면모를 보여준다.<sup>12)</sup> 곧 개양할미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여성거인신격으로 여타 여성거인 자료보다는 다소간의 신앙적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겠다.

라)의 안가닥할미는 경상도 울산, 월성, 경주 등지에서 전승되는 여성거인설화에 등장하는 여성거인이다. 따라서 경상도 동쪽 일부 지역에서 만 찾아볼 수 있는 여성거인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안가닥할미라는 명칭의 여성거인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지역에서는 여전히 마고할미설화가 전승되고 있어 경상북도 동부의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여성거인신격이다. 행위는 주로 성을 쌓다가 그만두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안가닥할미와 같이 등장하여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돌을 옮겨 성을 쌓는 여성거인신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채록편수가 적고 창조신적 성격도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니다.

마)는 삼척지역에서 전승되는 거인여성으로, 서구암 마고할미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보아 서구할미는 곧 서구암 마고할미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할미는 가)의 마고할미와 같은 존재라고 본다 해도 무방하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지형을 형성시키는 형태의 창조신적 면모는 약하고 악신적 존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일찍이 강진옥에 의해서 창조신격 성격의 여성거인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신으

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송화섭, 앞의 글)

12) 金井昊 편, <고양할미와 할미바위>,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1987. 357~3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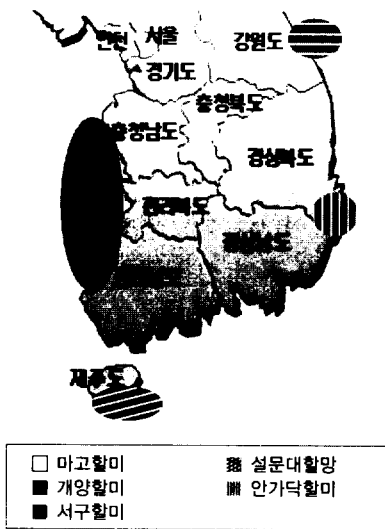
로 변모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받은 바 있다.<sup>13)</sup> 이것은 가)의 마고할미가 마귀할멈 관념으로 변화되면서 악신적 형상화가 두드러지는 양상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바)는 여성거인이 여장군 또는 여장사와 같이 막연한 호칭으로 지칭되는 경우를 이른다. 돌을 옮겨 지형을 형성시키는 경우 여성거인의 호칭이 기억되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을 때 돌을 옮겨 성을 쌓거나 지형을 창조하는 능력 때문에 막연히 힘이 세다는 의미의 여장군 또는 여장사라고 지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장군의 호칭 경우 여성거인보다는 지형을 형성시키는 힘센 존재로 남성거인을 장군 또는 장수라 지칭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어서 상호 관련성 속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호칭이다.

이상 각기 다른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여성거인의 자료 양상을 살펴 보았다. 우리 여성거인의 분포는 대체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형태와 지역적 분포를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여성거인으로는 마고할미를 들 수 있고, 지역적 분포로 보이는 여성거인으로는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서해안의 개양할미, 강원도 삼척의 서구할미, 경상도 동부지역의 안가닥할미가 해당한다고 하겠다. 물론 제주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육지의 경우는 지역적 분포를 보이는 여성거인과 함께 마고할미설화가 전승되는 양상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며 전승되는 여성거인신격들은 서로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일한 존재에 대한 지역적 변이형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기본적으로 그 존재들이 하는 행위

13) 강진욱, 앞의 글.



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명칭이 다르지만 그 행위나 성격 등은 그대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 준다. 제주도의 설문대할미나 서해안의 개양할미, 경상도 동부의 안가닥할미, 삼척의 서구할미 등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신적 성격과 면모를 보이고 있고, 자연물에 빗대어 그 외모를 과시하기도 하며, 배설물로 지

형을 형성시키면서 회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약신으로 변화하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 등 변이된 양상을 보이지만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각기 그 나름으로 다소간의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그 기본 성격마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은 성격의 여성거인이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칭으로 불리면서 그 기능과 행위를 수행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 3. 바다와 섬을 관장하는 여성거인신과 육지 여성거인신의 차이점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여성거인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구획하기는 어려우나 제주도의 설문대할미, 서해안의 개양할미 등과 같이 바다나 섬을 무대로 삼아 활동하는 여성거인이

있는 반면 마고할미, 서구할미, 안가닥할미 등은 주로 육지에서 활동하는 여성거인의 모습을 보인다.

바다·섬 권역의 여성거인	육지권역의 여성거인
설문대할망 개양할미	마고할미 안가닥할미 서구할미 여장사·여장수

위의 표에서 이처럼 구분했으나 마고할미의 경우 워낙 폭넓은 전승을 보이기에 바다와 관련된 양상을 보이는 자료도 물론 발견된다. <마고할미와 정포>와 같은 자료에서는 마고할미가 온 바다를 다 돌아다녀도 발목물밖에 차지 않았다고 한다거나<sup>14)</sup> <형도의 담과 오리섬>에서는 바닷물이 무릎까지밖에 차지 않는다는 마고할미가 똥이 마려워 변을 본 것이 오리섬이 되었다고 한다.<sup>15)</sup> 따라서 마고할미를 반드시 육지권역의 여성거인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처럼 바다에 빗대어 그 크기를 기능하게 한다거나 배설물로 섬을 형성시키는 등 바다 또는 섬과 관련된 자료는 일부 자료에 국한된다.<sup>16)</sup> 마고할미 자료를 전체적으로 두고 볼 때 일부 자료 외에는 대부분 육지에서 산을 이동시키거나 돌을 옮겨 성을 쌓는 등 육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아

14) <마고할미와 정포>, 『한국구비문학대계』1-7(경기 강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756~757쪽.

15) 『화성군사』, 화성군, 1990. 915쪽.

16) 이외에 <마고할미>, 『한국구비문학대계』6-5(전남 해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74~175쪽. <죽도의 마고할미> 『한국구비문학대계』2-4(강원 속초·양양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39~41쪽과 같은 자료에서도 마고할미가 바다의 깊이 또는 바닷가의 지형을 두고 설화가 전개된다.

도 틀리지 않다. 그렇다면 바다와 섬을 무대로 활동하는 여성거인과 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거인은 그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지형을 형성시키거나 자연물에 빗대어 거대한 외모를 보여주는 행위와 성격 등은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설문대할망과 개양할미와 같이 바다와 섬을 무대로 활동하는 여성거인은 육지의 여성거인과 비교해 신앙적인 면모가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서해안에서 전승되는 개양할미는 수성당이라는 신을 모시는 당집이 있고, 실제 어민들에게 제향을 받는 신격이며, 어민을 위해 바다 깊이를 고르게 해주고 어민을 지켜주는 신격으로 믿어진다. 수성당의 개양할미 이외에도 무안에서 전승되는 고양할미설화의 사례를 보더라도 갈따귀때를 쫓아 사람들을 지켜주었으며, 어민들이 고기잡이 나갈 때는 그 바위에 제를 올렸다고 전한다.<sup>17)</sup>

한편 제주섬의 설문대할망의 경우는 신앙적 흔적이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례를 통해 신앙시되었던 모습을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가장 오래된 설문대할망의 기록으로 이미 익히 알려진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漂海錄)』을 보면 설문대할망이 어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신으로 믿어졌음을 보여준다.

홀연 한라산 앞에 가까워짐을 보자 너무 기뻐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기를 “나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셔서저 산골에 오르게 하소서. 나의 아내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어 민등산에 오르게 하소서”라고 하고, 혹 일어나 한라산을 향해 절을 하며 빌어 말하길, “백록선자님 살려주소 살려주소 선마선파님 살려주소 살려주소” 대저 탐라사람들에게는 세간에 서 전하기를 “선옹이 흰 사슴을 타고 한라산 위에서 놀았다 하고, 또한 아득

17) 金井昊 편, <고양할미와 할미바위>,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1987. 357~358쪽.

한 옛날에 선마고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서 한라산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선마선파와 백록선자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은 당연하다.(忽然漢拏之近前 喜極而不覺 放聲號哭曰 哀我父母 陟彼岡矣 哀我妻子 陟彼岡矣 或起拜 向漢拏而祝曰 白鹿仙子 活我活我 誥麻仙婆 活我活我 蓋耽羅之人諺傳 仙翁騎白鹿 遊于漢拏之上 又傳遼古之初 有誥麻姑 步涉西海而來 遊漢拏云 故今者所以祈活於誥麻白鹿者 無所控訴而然也)<sup>18)</sup>

여기에서 보면 표류하던 중 뱃사람들이 한라산이 눈에 들어오자 백록선자와 선마고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다. 이 기록은 제주의 뱃사람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설문대할망을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배가 표류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라산이 보이고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자 그들이 먼저 찾는 신이 곧 설문대할망이었다는 점은 그만큼 설문대할망이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믿어지던 신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해녀들을 지켜주는 마을신으로 좌정하여 제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이다. 곧 설문대할망이 표선리 당개포구의 해신당 당신으로 좌정하여 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개할망은 아들이 일곱 성제우다. 당개할마님이 저바당한집과 부배간 인디, 예날 옛적 할로영산에서 솟아나 귀신이 아닌 생인으로 한 가달은 성산면에 걸치고, 한 가달은 한라산 꼭대기에 걸쳐놓아 연서답을 한는데, 맹지 아흔아홉 동 폐와 속옷을 만들었는데 강알을 가릴 한 통이 모자라 물맹주 한통을 당하면 부산, 목포더레 다릴 노케허난 그 땐 인간에 맹주가 어디 십니까. 우리 인간엔 그 때 맹주가 개 어시난, 우리 죽으믄 죽어도 맹주

18) 張漢詰, 「漂海錄」,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362쪽.

흔 필 내놓을 수 엇댄허난 부산과 목포 물막은 섬이 되어비엿주. 그때는 천지개화기우다. 아들이 일곱성제디 다섯 성제는 할로영산 오백장군 오백 선생 거두 잡고, 아들 흐나는 할망이 그 때 그 시절에 가매에 몰앗전 죽을 썬랜 헨 간 오란 보난 죽은 아덜이 죽을 썬다가 죽에 빠전 죽어부렀어. 게난 죽은 아덜은 너무 부정이 만만허다. 너는 애 몰르고 목이 탈테니 소섬을 츠지허라. 할망이 파쳐시켜도, 다섯 성제가 할로영산 오백장군 오백 선생 거두잡으난 수덕이 좋은 겁주. 여기 표선리 한모살도 설맹디할망이 날라다 쌓은 거. 아들을 보내고 뒷녁날 아척은 좌정처를 좇아 산터 보듯 돌아보난 에 그 디(당개)가 앓아 좋댄허난 좌정허여, 나고 드는 상선 중선 만민자손 천석궁 만석궁 공자 맹자 다 거두잡고 좀녀들랑 거부케 흐는 할머님<sup>19)</sup>

홍두반 심방이 구송한 당신화로, 어선도 관장하고 잠녀들을 거부(巨富)되게 해주는 당신임을 보여준다. 한쪽 다리는 성산에, 또 한쪽 다리는 한라산에 걸치고서 빨래를 했다고 하여 거인적 면모가 그대로 담겨 있고 육지로 다리를 놓아주려 하다가 그만 둔다거나 아들 하나가 꿇이던 죽에 빠져죽고, 아들 중 5형제가 오백장군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는 등 설문대할망설화의 다수 화소가 다소 변형되어 당신화로 형상화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이 특정 마을을 관장하는 당신으로 좌정하여 신앙민을 보호해주고 부를 가져다준다고 믿어지면서 신앙시되는 양상이다.

세 번째는 제주도의 <산신굿>의 무가 사설에서도 설문대할망의 내용이 담겨 있어 신앙대상 신격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한로 영주산 저물기이 당해서  
선맹디할망으로 논흐면

19) 『表善里郷土誌』, 표선리 원로회, 1996. 154~155쪽.(조현설, 앞의 글 31쪽 재인용)

그물 7에 드러 사서 육지로 내조  
 드리 노아 주마 흐시다가  
 백명지를 없어 예시건 못흐니  
 드리 못 노아서  
 일월산신 처서님 불공입내다.

이것은 장주근이 「제주도여신고」에서 소개한 고봉선(高奉仙)심방 구송의 <산신굿>의 한 대목으로, 후에 이성준이 현지조사를 통해 1950년대까지 이런 <산신굿>이 성행했음과 위와 같은 설문대할망의 행적을 담아 섬기는 사실이 전승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sup>20)</sup>

이런 기록이나 제의 사례를 볼 때 도내(島內)에서 설문대할망에 대한 신앙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정 부분 어민이나 제주사람들을 지켜주는 신격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믿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설문대할망과 같은 여성거인이 회화화나 민담화되어 나타나는 자료들도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에게 신성한 신격으로 신앙시되었다는 점은 여성거인의 창조여신으로서의 본질을 가늠케 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반해 육지의 여성거인은 숭배대상이거나 그들을 보호해주는 신격으로 기능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sup>21)</sup> 제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서구할미나 마귀할멈 등의 설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신격, 퇴치 대상이 되는 신격으로 전개된 양상도 강하게 나타난다.

20) 이성준, 앞의 글, 62쪽.

21) 조현설, 앞의 글, 32쪽. 여기서는 할미산성을 쌓은 마고할미가 마을신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마고할미가 마을신이 모셔지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거인설화는 기본적으로 회화화되거나 우스갯소리로 전락해버린 경향이 강하다. 창조여신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신격이 자리를 잡으면서 여성거인에 대한 신앙적 면모가 약화되고 그 신성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면서 회화화되거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고 만다. 그럼에도 육지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자료와 바다와 섬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설화에는 그 정도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바다를 관장하는 여성거인은 여전히 어민들의 수호신적 기능을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면 육지에서는 신앙적 면모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신화적 면모를 거의 잃어버린 양상이다. 험난한 바다를 기반으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위험을 극복해야만 했던 바닷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신성관념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랜 역사 속에 새로운 신관념이 도입되고 교차하면서 지형을 창조하는 여성거인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신앙의 대상으로서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지만 바다를 기반으로 한 여성거인은 아직 그 신앙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 4. 남성거인신과 여성거인신의 관계성

우리의 거인설화에는 대부분 여성거인의 모습을 띠는 것이 보편적이다. 앞서 살폈듯이 지역별로 다양한 여성거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나 행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거인설화 중 일부는 남성거인이 등장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남성거인과 여성거인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남성거인의 자료양상이 어떤지, 그 행위와 성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남성거인



의 면모가 여성거인의 면모와는 별개의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성 거인이 등장하는 설화의 형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듯하다.

- 가. 장길손
- 나. 부부 거인신
- 다. 장군 등

가)의 장길손은 가장 대표적인 남성거인이다. 장길손 또는 장길산이라는 명칭으로 전승되는데,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키가 큰 사람'과 같이 특정의 이름 없이 막연하게 지칭되며 전승되기도 해서<sup>22)</sup> 실제 장길손 또는 장길산이라는 이름으로 채록된 사례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sup>23)</sup> 이런 장길손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거나 지형을 형성시키는 거인적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출현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인적 행적을 보여주며, 그 거인적 행적 또한 회화화되는 양상이 강하다. 장길손에 대한 전승은 대체로 두 가지 존재양상을 보여준다. 첫째는 배설물로 지형을 형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길손이 엄청난 거인이어서 옷을 해입지 못하자 왕이 불쌍히 여겨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옷감을 모아 옷을 해입히니 그것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 그림자에 가려 사람들이 농사를 망치게 되고,

22) 손진태, <朝鮮山川의 由來>, 『朝鮮民譚集』, 郷土研究社, 1930. 37~38쪽.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편), 문화재관리국, 1971. 744~745쪽. 이들 자료에서는 같은 내용의 설화를 채록하고 있으나 장길손이라고 하지 않고 막연히 키가 큰 거인이라고 지칭한다.

23) <키가 큰 장길산>, 임석재전집2 『한국구전설화』(평북), 평민사, 1988. 265~266쪽.  
 <엄청나게 큰 사람 장길손>, 임석재전집5 『한국구전설화』(경기), 평민사, 1989. 189~190쪽. 한상수, <장길산>,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1986 등이 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쫓아내니 만주로 쫓겨간 장길손이 흙을 파먹고는 배설물로 산맥과 강 등의 지형을 형성시킨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동일하게 옷을 해입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나라에서 벌을 주려하는데, 그 신체가 너무 커서 곤장을 때리려 엉덩이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해 온전히 벌을 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모두 옷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장길손에게 옷을 해준 것이 발단이 되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곧 옷을 해준데 대한 고마운 표현이 잘못되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형태인 것이다. 전자에서는 배설물로 희화화되면서 지형을 형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나마 지형창조의 신화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지만 후자에서는 그저 벌을 주려고 하다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식의 우스갯소리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남성거인 장길손은 거인 신격의 창조행위의 신성함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흥미를 위해 희화화시키고 우스갯소리처럼 만든 형상이다. 이런 가)는 거인이 옷을 원하고 사람들이 옷을 해주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 배설물로 지형을 형성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설문대할망설화와 흡사한 자료적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설문대할망 자료 중 희화화되거나 신화적 성격이 탈락된 채 민담화된 형태의 자료에 상응하는 양상이다. 특정의 남성거인이 등장하는 경우<sup>24)</sup> 이처럼 신화적 성격을 유지하기보다는 흥미 본위의 거인행적으로 퇴색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는 여성거인의 이름을 따와 부부가 함께 출현하는 양상의 자료들이다.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루방, 마고할미과 마고할으범 등 대부분의 여성거인설화에서 여성거인의 남편으로 짝을 이뤄 나타나는 모습을 보

24) 이외에 구전설화에서는 <단군>이라든가 <김수로왕의 根>과 같이 전국시조가 거인을 지닌 거인적 존재로 설정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권태효의 『한국의 거인설화』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권태효, 앞의 책, 175~176쪽)

여준다. 여성거인과 더불어 남성거인이 짝을 이뤄 등장하는 자료는 채록편수가 많은 마고할미와 설문대할망 자료에 주로 나타나는데, 그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외에는 거인적 행위를 하는 여장수와 더불어 남장수가 함께 출현하기도 하고, 안가닥할미 자료도 안가닥할미범이 함께 등장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지만 혼한 모습은 아니다.

먼저 마고할미와 관련해서는 주로 지형을 형성시키는 행위에 있어 같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을 인근산의 유래>와 같은 자료를 예로 들어보면 마고할미 내외가 새로이 산을 형성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자료로, 마고할미는 산을 치마에 싸서 가다가 한쪽 옷끈이 풀려 버린 것이 땅미산이 되었고, 영감은 산을 짊어지고 가다가 산이 부러져서 버린 것이 건지산이 되었다고 한다.<sup>25)</sup> 이런 형태로 마고할미범이 짝을 이뤄 등장하기는 하나 여성거인과 별개의 행위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남성거인이 설정된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제주도의 설문대하루방 경우는 육지의 마고할미범과 달리 지형을 형성시키는 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오백장군의 아버지로 함께 나타나거나 설문대할망이 사냥을 하는데 있어 그것을 돕는 조력자로 주로 등장한다. 현용준이 채록한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루방><sup>26)</sup>과 같은 자료를 보면 두 부부가 배가 고프자 성기로 바다의 고기를 몰아 잡아서 주린 배를 채웠다고 한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 도와 사냥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상 설문대할망이 성기로 사냥을 하는 모습은 『대계』9-1의 <설문대할망>과 같은 자료에서 보면 혼자서도 사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반드시 남성거인이 도와야

25) <마을 인근산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 8-8(경남 밀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65쪽.

26)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705~706쪽.

하는 것이 아니며, 단조로운 할망의 행위와 결과를 보다 흥미롭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상대가 되는 남성거인을 첨가하여 설정시킨 변이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곧 마고할미든 설문대할망이든 남성거인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저 할미의 행위를 함께 하는 부수적인 존재로서의 역할과 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는 지형을 형성시키는 존재로 남성거인인 경우 막연히 장군 또는 장수로 지칭되는 경우이다. 남성거인의 경우 가)의 장길손 이외에는 대체로 특정의 이름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막연히 크고 힘이 센 존재라는 의미로 장군 또는 장수라는 명칭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 그 행적은 산을 옮겨와 지형을 형성시키거나 자연물에 빗대어 그 크기를 가늠하게 하는 양상을 보여줘 여성거인신격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특정의 거인 명칭을 얻지 못한 것은 온전한 신격의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것이며, 신격으로서의 권능이 이미 잊혀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거인적 행위나 면모를 보이는 여성거인이 전승과정상 그 이름이 잊혀지면서 여장사나 여장수 등과 같은 막연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다시 덩치가 아주 크고 산이나 큰 바위를 이동시키는 존재가 여성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이런 존재는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행위나 모습일 것으로 생각해 장수 또는 장사라고 호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곧 여성거인설화였던 데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남성거인으로 바뀌어 전승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상과 같은 남성거인의 성격을 여성거인을 염두에 두면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첫째, 남성거인설화 자료는 태초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신적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어 있거나 그런 성격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성거인설화 자료 중 회화화나 민담화가 진행된 자료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곧 자료가 원초적인 형태를 보여준다기보다는 후대의 변모된 성격을 지닌 자료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남성거인은 여성거인과 동일한 행위를 하거나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여성거인과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그 존재가 없다고 해도 설화 전개에 있어 그다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미의 명칭을 따라 함께 등장하는 남성거인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거나 여성거인과 별개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없어도 무방한 존재이며, 그저 부수적으로 설정된 양상을 보여준다.

셋째, 남성거인에 대한 신화적 대상으로의 뚜렷한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남성거인은 그저 여성거인을 따라 설정되어 동일한 행위를 하거나 막연히 엄청난 거구이고 힘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장군이나 장수 등의 힘센 존재를 나타내는 보통명사를 가져다 사용한 양상을 보인다.

넷째, 여성거인에 대한 전승이 후대에 현실적 인식에 따라 변모되면서 남성거인으로 대체되는 과정의 한 단면으로 남성거인이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형을 형성시키거나 돌을 옮겨 성을 쌓는 모습을 두고 이것이 과연 여성거인적 존재의 행위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성거인으로 변모시켜나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 5. 여성거인설화의 변이 방향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서 독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부는 설문대할망의 위대함과 성스러움을 신봉하던 탐라인들의 이야기이고, 할망이 사망하는 후반부는 할망의 죽음을 바라고 할망의 죽음으로 이권을 챙긴 사람들, 즉 탐라국의 주인공인 된 남성들이 붙인 것이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이 신화의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지요.<sup>27)</sup>

이것은 전경수가 설문대할망설화를 살피면서 자료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언급한 부분이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설문대할망설화가 한 시대에 하나의 층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이지만 그 사이에 많은 시간적 차이를 지닌 채 전승된다고 하는 것이다. 실상 여성거인설화는 지형 형성과 같은 창조신화적 성격의 자료로부터 배설이나 성기 등을 강조하는 형태의 회화화된 자료, 제주도의 지형을 형성시킬 정도의 거인이면서도 꿩이던 죽이나 물장오리에 빠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자료 등 다단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이해하기보다는 전승과정상의 변이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다양한 여성거인설화 자료를 전체적으로 두고 살피다보면 일정한 흐름의 변이 방향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양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창조신에서 회화화된 신격으로
- 나. 숭배의 대상에서 징치의 대상으로
- 다.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신에서 악신으로
- 라. 여성거인에서 남성거인으로
- 마. 비현실적 형상화에서 현실에 가까운 형상으로

가)는 여성거인설화에 창조신화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

27) 전경수, 앞의 글, 110쪽.

하면 우스갯소리로 전락해버린 설화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기에 지적하는 것이다.

여성거인의 창조신적 면모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설화가 전개된다. 하나는 여성거인 스스로가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의 창조행위를 돕는 부신적(副神的) 성격의 존재로 기능하는 것이다. 태초에 창조주로서 제주도를 비롯한 지형 형성을 이룩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는 『대계』9-2에 수록되어 있는 <설문대할망>을 들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설문대할망의 창조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늘광 땅이 부뒸는디 천지개벽할 때 아미영하여도(아무리하여도) 열린 사름이 이실 거라 말이우다. 그 열린 사름이 누구게 열렸느냐 하민 아주 키 크고 센 사름이 딱 떼어서 하늘은 우테로(위로) 가게 하고 땅을 밧트로(밑으로) 하여서 하고 보니 여기 물바다로 살수가 없으니 궂드로(가로) 돌아가명 혹 파 올려서 제주도를 맨들었다...<sup>28)</sup>

천지개벽시에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있었는데, 설문대할망이 천지를 분리시켜 하늘을 위로 가도록 하고 땅은 아래로 가도록 한 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물 속에서 흙을 파올려 제주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여기서 설문대할망은 단순히 제주도를 형성시킨 여성거인이기보다는 태초에 천지를 분리시키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지 제주도 지형을 형성시킨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며, 이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던 모습을 제주도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을 뿐이다. 곧 태초에 설

28) <설문대할망>, 『한국구비문학대계』9-2(제주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2쪽.

문대할망이 나타나 천지를 분리시키고 제주도를 비롯한 지형을 창조하는 창조여신의 모습도 잘 보여주는 자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설문대할망의 창조신적 면모는 육지의 마고할미설화에서도 보이는데, 대표적인 자료가 <노고 할미바우 이야기>이다. 옛날에 노고가 있어 산천을 전부 만들었는데, 손이 얼마나 크고 힘이 좋은지 그저 평평한 데 가서 줄을 쪽쪽 그으면 산이 되고, 골이 돼서 인물이 나고 했다고 한다.<sup>29)</sup> 곧 태초에 마고할미라는 여성거인이 이 세상의 산과 골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창조신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창조신으로서의 여성거인 존재의 기능이 보이는가 하면 창조주를 도와 그가 시키는 창조행위를 돕는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가미되어 나타나는 양상이어서 그 결과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실패하는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곧 <옥계천의 진주석><sup>30)</sup>과 같은 설화에서 보면 성(城)이나 선경(仙境)을 만들기 위해 돌을 옮기다가 결국 실패하고 창조행위를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고서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띠는 것이다. 이처럼 창조신적 성격의 여성거인이 창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창조주를 돕는 부신(副神)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성거인신격에 대한 위상이 약화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거인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화가 보다 더 진행된 형태는 배설물로 지형을 형성시키거나 성기로 사냥을 하는 등 회화화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이다. 여성거인이 배설물로 지형을 형성시켰다고 하는 것은 거인에 의해 지형이 창조되는 것이기는 하나 창조행위의 본질을 이미

29) <노고 할미바우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2-1(강원 강릉, 명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68~569쪽.

30) <옥계천의 진주석>, 임석재전집12 『한국구전설화』(경북편), 평민사, 1993. 24쪽.



잊어버리고 그저 흥미 본위의 우스갯소리로 전락해서 전승되고 있는 양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설문대할망에게서 보이는 성기로 사냥하는 모습 또한 거인의 큰 체구에 걸맞게 성기도 크다고 생각하여 여성거인의 음부로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형태의 회화화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여성거인의 창조행위는 분명 인간들에게 창조신으로서 숭앙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거인이 지형을 형성시킨데 따른 창조신적 존재로서 숭앙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행위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창조신적 행위임에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고, 그 때문에 신성시 여기지도 않게 되자 여성거인은 인간을 보살피거나 인간을 돕는 존재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탈바꿈하는 형태로 인간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어 섬겨진다. 어민들이나 섬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믿어졌던 설문대할망이나 개양할미 등은 앞서 살폈듯이 신성한 신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창조신적 권능이나 수호신적 면모를 보이는 양상은 오히려 드물게 되었다. 어느 새 여성거인의 창조행위는 그 빛을 잃었고 특히 전승과정상 음이 유사한 마귀할멈 등으로 명칭이 혼동되면서는 악신으로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 징치하는 존재는 하느님 또는 산신령과 같은 또 다른 상위의 신격이 벌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그 창조행위를 하는 거인의 행적만은 설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거인에 의해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인설화임에도 마귀할멈이 악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악신으로서 징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쌍봉산>이라는 자료를 보면, 남쪽에서 나쁜 짓만 일삼던 마귀가 서울로 가면서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에게 병을 주어 사람들이 '무꾸리'를 하였으나 음식만 먹고는 그냥 가는 악행을 계

속하자 하늘에서 섬으로 쫓아내고자 하나 마귀할멈이 거절하여 벼락을 내려 처치했다고 한다. 이 때 마귀할멈이 메고 있던 두 개의 쌀자루는 변해서 쌍봉산이 되었고, 양 봉우리에는 쌀자루를 짊어졌던 멬빵자리가 남아있다고 한다.<sup>31)</sup> 이 설화에서 마귀할멈은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사람들이 제를 올려 위했음에도 심술만 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뒷부분의 지형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남쪽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산이 이동하는 양상은 산이동 설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산의 이동에 있어 거인이 멬빵을 하여 산을 짊어지고 가다 끈이 끊어져 산이 그 곳에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형태로 지형이 형성되는 것은 거인설화의 흔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설화는 원래 거인에 의해 산을 옮기던 모습이 변이된 형태이고, 산을 옮기던 행위를 하던 마귀할멈이 정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 설문대할망의 경우 악신으로 형상화되지는 않지만 옷감 한 동이 모자란다고 다리를 놓아주지 않거나 성기로 사냥을 한다고 하여 음탕한 할망이라고 여기기도 하며, 물장오리에 빠져죽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나 퇴치의 대상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31)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마귀>(『화성군사』, 화성군, 1990, 900~901쪽.)도 동일한 성격을 보여주는 설화이다. 악행을 하던 마귀할멈과 마귀할아범이 한양으로 가다가 산신령에게 징치되어 각기 산이 되었다는 것으로, 거인에 의해 지형이 형성되는 설화였던 데서 거인신격의 창조신적 성격은 사라지고 악신적 형상화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지석묘와 마귀할멈>(『한국구비문학대계』1-7(경기 강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01~102쪽.)에서는 마귀할멈이 중국장수로 나타나 큰돌로 우리나라 산맥의 기를 자르는 악행을 한다. 여기에도 마귀할멈의 지형형성에서 창조신적 면모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외에도 마귀할멈이 큰 바위를 치우도록 하다가 자식 남매들을 죽게 했다는 <마산봉에 얽힌 이야기>도 악신의 모습으로, 지형 형성의 면모가 남아 있는 설화라 할 수 있다.(『시흥의 전통문화』, 시흥군, 1983, 102~103쪽)

꼭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양상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의 여성거인은 지형창조를 비롯해 어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주기도 하는 등 선신(善神)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성사가 되는 못했지만 설문대할망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려 했다거나 개양할미가 온 바다를 다 돌아다니면서 흙으로 깊은 바다를 메워 고르게 한 행위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한 행위이며, 이들 여성거인이 어민들을 보호해주는 선신으로 여겨진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창조여신으로서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여성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한층 더 나아가 마을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독한 마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기까지 한다.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마고할미가 지고 다니던 자루가 남아 산이 되었다고 하여 지형 창조의 행위는 그대로 남긴 채 악신으로 변모된 형태를 보이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마고할미의 창조신적 면모는 완전히 사라지고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형태의 이야기로 전승되기도 한다. 삼척에 전해지는 서구암 마고할미이야기를 비롯해 화성 등지에서 전해지는 마고할미 이야기에서도 마고는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고 악행을 일삼는 퇴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그 마고 할미에다 그 무슨 선물을 해 좌야(주어야) 가야 한답니다. 선물을 해 주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큰 코 다치지요 큰 코 다치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색시라도 그 앞을 처녀라도 그대로 지나가고, 뭐, 이렇고 하면 뭐, 마고할미가 뭘 조화를 부려 가지고 막 임신까지 시키고 뭐 이런 아주 상서롭지 못한 그런 그 얘기가 되는데,…… 32)

32) 『한국구비문학대계』2-3(강원 삼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243쪽

마고할미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악행을 일삼고 심지어는 처녀를 임신시키기까지 한다고 믿어진다. 이런 마고할미라면 위대한 창조여신으로, 그리고 인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서 숭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더 이상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거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는 아니며, 세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악신으로 변모되고 만 서글픈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창조여신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의 여성거인에서 남성거인으로 전이되는 양상은 거인적 존재의 설정 또는 그 행위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산이나 바위를 옮겨 지형이나 성을 형성시키는 행위가 더 이상 창조행위로 인식하지 않게 되면서 그런 행위를 과연 여성이 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여성거인보다는 남성거인에 의한 행위로 변이시켜 전승시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육지의 여성 거인 행위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여성거인이 성을 쌓기 위해 바위들을 이동시키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자료마저도 남성거인으로 그 주체가 바뀌어 전승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千將軍이 山城을 쌓 때 바대 가에 있는 돌을 날러다가 싹담이다. 바대 가에 있는 돌을 나를 때에는 도술을 써서 돌이 제절로 산 우그로 올라가게 했다 캄이다. 성이 다 된 뒤에는 올라오던 돌덜은 우그로까지 가지않고 성 아래서 머물게 댔는디 그리서 성 아래에 있는 돌들은 모두 성 있는 쪽을 행하고 있입이다. 千將軍은 산성을 쌓고 거그서 시는디 일곱 시녀들이 찾아와서 같이 살겠다고 했입이다.<sup>33)</sup>

33) <대곡산성>, 임석재전집10 『한국구전설화』(경남편 I), 평민사, 38쪽.

<대곡산성>이라는 이 자료는 거인 남성장수가 성을 쌓는 모습인데, 흔히 여성거인이 하던 행위가 남성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곡산성에 대해 달리 전하는 이야기에서 이 성은 오누이힘내기설화에서 누이가 돌을 옮겨 쌓은 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4)</sup> 곧 천장수가 돌을 옮겨 성을 쌓는 행위는 여성거인의 보편적인 행위인데다가 달리 전하는 각편에서는 여성거인의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거인의 이야기가 전승과정상 남성거인의 행위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형을 형성시키거나 성을 쌓은 작업이 여성의 행위로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여성의 자리를 남성장수로 대체시켜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여성거인에서 남성거인으로 대체되는 양상은 제주도 설문대할망의 경우는 여성거인에 대한 인식이나 명칭이 완강히 남아있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마)는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여성거인의 행위를 비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거인의 설정 자체를 전승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어느 정도 현실적 형상화를 시키는 양상을 이룬다. 여성거인은 대체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에 주로 자연물에 빗대어 외모를 묘사하거나 그 행위를 통해 어느 정도의 거구인가를 파악하게 해준다. 설문대할망의 경우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가 바다에 닿아서 발로 물장난을 쳤을 정도로 컸다고 한다거나 치마폭에 흙을 담아서 쏟아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었다고 하는 등<sup>35)</sup> 거구에 걸맞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거인적 외모와 행위를 두고 전승과정상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어 의심 또는 비판을 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떠내려온 어양산>과 같은 설화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야기를

34) <대곡산성>, 임석재전집10 『한국구전설화』(경남편 I), 평민사, 37~38쪽.

35) 장주근, 「천지창조의 거신설화」,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13~14쪽.

듣고 있던 청중이 거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거인이 행하는 지형 창조행위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어느덧 거인의 창조행위는 잊혀진 신화적 관념일 뿐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사고가 되어버린 것이다.

문산 뒷사(뒷산)이 어양사인데, 옛날에 [청중:아, 어양산 그래] 그 사(산)이 떠나려와가주고 여(여기) 와가주고 앉았는데, 이 집바 테가 있다. 그 지방 집, 집바 테가 사 사실로 보며 있거던. [웃으면서] 집바해 가지고 온테(터)가, 그래가주고 거 문산 뒷사이라고 그래 있는데. [청중1:산도 쪼맨은 글으만 하지만은 누가 그 집바 지고] [일동 웃음] 그 장구(장군)이 그랬지 그기사, [청중1:장구이 장구이, 장구이 어예 산을 지고오노?] [청중2:장군이 힘을 가 지는 게 아이고] 그 저저 문사이 뒷사이 저 어양, 어양서러 떠나려와가 여 와 앉았다.<sup>36)</sup>

이 자료는 전승자들이 거인의 지형 창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이 작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고 올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다. 거인이 산을 옮겨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것이다. 지형을 형성시키는 거인의 행위가 태초의 신성한 창조작업이라는 인식은 이미 사라졌으며, 단지 거인 존재의 설정이나 산을 옮기는 행위 자체를 비현실적이라 여기고 그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sup>37)</sup> 아울러 짐바테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면서도 떠나려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거인이 매고 온 것보다는 떠나려왔다고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생각

36) <떠내려온 어양산>, 『한국구비문학대계』7-2(경북 경주, 월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7~58쪽.

37) 권태효, 앞의 글, 131쪽.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이라고 하여 비판을 받게 되자 보다 현실에 가까운 거인의 형상을 찾는 방향으로 변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한편 설문대할망설화에서는 할망의 행위를 두고 이처럼 못민것다는 반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물장오리에 설문대할망이 빠져죽었다고 하는 설정 자체가 여성거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섬을 만들고 한라산을 조성한 여성거인이 물장오리나 죽술에 빠져죽었다는 설정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며, 이런 모순은 결국 설문대할망을 거인할망으로 인정하기보기보다는 인간적 존재로 회귀시켜놓은 결과인 셈이다.

## 6. 마무리

이 글은 여성거인설화의 연구에 있어 몇몇 남은 문제를 다루고자 마련한 글이다. 그동안 여성거인설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집적되어 왔으나 그래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익히 검토되었을 법한데, 그렇지 못했던 네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여성거인설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밝힐 수 있었던 바들을 정리하면서 향후 과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첫째는 여성거인은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적 분포를 보이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여성거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마고할미와 특정의 지역적 분포를 보이는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서해안의 개양할미, 강원도 삼척의 서구할미, 경상도 동부지역의 안가닥할미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여성거인은 그 명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행위나 성격 등은 그대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동일한 존재에 대한 지역적 변이형인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바다와 섬을 관장하는 여성거인은 육지의 여성거인과는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육지의 여성거인은 신앙적 면모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신화적 면모가 크게 약화된 반면 바다와 섬을 무대로 활동하는 여성거인은 여전히 어민들의 수호신적 기능을 하는 등 신앙적 흔적이 남아있다. 오랜 전승과정 속에 육지에서는 지형을 창조하는 여성거인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지만 바다를 기반으로 한 여성거인은 아직 그 신앙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는 설화에 등장하는 남성거인적 존재는 여성거인과는 어떤 관계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남성거인설화 자료는 태초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형태의 창조신적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창조신적 기능 또한 현저히 약화된 양상이어서 여성거인설화 자료 중 회화화나 민담화가 진행된 자료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아울러 여성거인에 대한 전승이 후대에 현실적 인식에 따라 변모되면서 남성거인으로 대체되는 과정의 한 단면으로 남성거인이 출현한 모습도 보인다.

넷째, 여성거인설화는 다양한 자료 양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변이의 방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두고 살펴볼 때 대체로 다섯 가지 방향으로 변모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곧 1) 창조신에서 회화화된 신격으로 2) 숭배의 대상에서 징치의 대상으로 3)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신에서 악신으로 4) 여성거인에서 남성거인으로 5) 비현실적 형상화에서 현실에 가까운 형상으로 등의 변이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의문은 인간의 본원적인 관심사이다. 여성거인설화는 지형을 형성시키는 창조신적 면모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지만 자료양상이 워낙 다단해서 쉽사리 그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여성거인설화는 전승되어 내려온 시간이 길고 전승 자료의 층위도 복잡하며,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아울러 산 이동설화나 오누이힘내기설화, 장수혼적설화 등 연계성을 보이는 설화 자료 또한 많고, 원초적인 여성신 관념과 상통하고 있는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그 존재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하는 이들 자료와의 폭넓은 비교도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여성거인설화의 연구는 1)지역별 여성거인신의 성격과 존재양상 파악, 2)전국적인 분포지도와 성격의 비교, 3)다양한 여성거인설화의 층위에 따른 구분과 관계성 검토, 4)여타 설화에 남긴 거인설화의 흔적 더듬기, 5)여성거인신격의 위상에 대한 온전한 자리매김, 6)중국·일본 등 인근 지역 지형창조신화와의 비교, 7)세계거인설화 속에 우리 여성거인설화의 판도 등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뤄 나갈 때 우리의 여성거인설화는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편>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민속종합자료보고서』(전남편), 문화재관리국, 1971.  
『시흥의 전통문화』, 시흥군, 1983.  
『화성군사』, 화성군, 1990.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金井昊 편,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1987.  
손진태, 『朝鮮民譚集』, 郷土研究社, 1930.  
임석재, 임석재전집1~12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88-1993.  
張漢喆, 『漂海錄』,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진성기, 『제주도전설』, 백록, 1992.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1986.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 <연구편>

-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25집, 한국민속학회, 1993.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권태효, 『마고할미 - 여성 거인의 서글픈 창조의 몸짓』(서대석 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2, 휴머니스트, 2008.)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김인희, 「거녀설화의 구조와 기능」, 중앙대 석사논문, 1994.  
김인희, 「한·중 해신신앙의 성격과 전파」, 『한국민속학』33호, 한국민속학회, 2001. 6.  
김헌선,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33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8.

-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박종성, 「창조와 대지의 여신 설문대할망의 서러운 일대기」, 2009 '제주도 본풀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11.
- 송화섭,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 『민속학연구』22호, 국립민속박물관, 2008. 6.
- 송화섭, 「한국의 마고할미 고찰」, 『역사민속학』1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7.
- 임동권, 「설문대할망설화고」, 『한국민속논고』, 집문당, 1984.
- 이성준, 「설문대할망설화연구」, 『국문학보』10호, 제주대 국문학과, 1989.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장주근, 「천지창조의 거신설화」,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전경수, 「탐라신화의 고금학과 모성중심사회의 신화적 특성」, 『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2009.
- 조현설,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 제주도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신화 재조명 발표논문, 2009. 5.
- 조현설, 「마고할미인가 마귀할미인가」,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 허 춘, 「설문대할망 설화 논고- 제주도 거녀설화의 성격」,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백문사, 1993.

## Abstract

##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Giant Tale

Kwon, Tae-Hyo\*

Due to the aspect of god of creation who forms topographical features, tales of female giants have been drawn attention in the academia. However, those of female giants have long period of transmission and contents at the complicated level, and have been distributed in the variety of regions. Also, since there are a lot of related tales existed and those of female giants are related to the concept of primitive goddess, the tales should be researched and be looked into from multiple angles.

Although massive volumes of researches on tales of female giants have been conducted so far and reached at certain level, still there are several matters remained to be concerned. First, the concern we should look into is what kinds of regional distribution which female giants bring about. In terms of the distributional types of female giants, they could be divided into two groups, distribution at national level and regional level. Grandmother *Mago* is found nationwide except on *Jeju* Island. Speaking of regional distribution, Grandmother *Seolmundae* from *Jeju* Islands, Grandmother *Gaeyang* from the Western sea area, Grandmother *Seogu* from *Samcheok* in *Gangwon* province, Grandmother *Angadak* from the Eastern *Gyeongsang* province are being found at the regional level.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xisted with regard to what the tales are named, the features of having same kinds of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are being found in the female giants in the tales. Accordingly, this phenomenon could be concluded that the same character is being modified regionally.

Second, the matter of difference between female giants who are in control of sea and islands and female giants who are in control of land. In the case of female giants in control of land, the aspects of faith and myth are not that highlighted. As functioning the role of faith gets weaken, the role of myth which female giants could serve gets weaken as well. On the other hand, since female giants in control of sea and islands serves the role of patron saint for fishermen, functioning the role of faith served by female giants of sea and islands is being found.

Third, the matter of what kinds of relationship female giants have with male giants is looked into. It is hard to find the sources containing the features of god of creation who forms topography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in the tales of male giants unlike those of female giants have. Also, the role and function of god of creation are not that strong in the tales of male giants. In this regard, those of male giants appear to be seen that they have certain types of similarities with the sources having features of being caricatured and becoming folk-tales in the tales of female giants. In addition, as transmission of tales of female giants has been changed by the recognition of people in the contemporary times, it seems that similarities that female giants are being replaced to male giants.

Fourth, the features of the way how the tales of female giants have been changed could b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first, from the god of creation to caricatured god, second, from the object to be worshiped to the object to be thrown away, third, from god of good who benefits people to god of evil, fourth, from female giants to male giants, fifth, from embodiment of unreality to embodiment of something near to

reality.

**Key Words**

tales of female giants, Grandmother *Seolmundae*, Grandmother *Mago*, Grandmother *Gaeyang*, Grandmother *Angadak*, god of creation, caricatured god, female giants in control of sea and islands

교신 : 권태효 110-82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5  
국립민속박물관  
(E-mail : 032918@hanmail.net 전화 : 02-3704-3265)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7. 30.

게재확정일 2010. 08. 10.